

2012
August 30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일본, 의료관광 시장 성장 가능성 검토

정책동향

- [미국] 미국, 건보개혁법 시행시 6만3천명 의사 총원 불가피
- [영국] 영 보건부, 불법 성형업 규제 강화
- [EU] EU, 재정위기로 의약품 가격 인하 압력 가중
- [중국] 중 교육부, 상하이 의대생 훈련 프로그램 전국으로 확대

산업동향

- [미국] 미 화이자·밀란, 일본내 공동 마케팅 제휴
- [일본] 일 의학종합연구소, 파킨슨병 억제 메커니즘 규명
- [영국] 영 GSK, 인도 원료의약품 공장 생산 중단
- [EU] EU 화장품 직판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포커스

- 일본, 의료관광 시장 성장 가능성 검토 1

정책동향

- [미국] 미국, 건보개혁법 시행시 6만3천명 의사 충원 불가피 5
- [영국] 영 보건부, 불법 성형업 규제 강화 5
- [영국] 영 법원, '잠김증후군' 환자 안락사 불허 6
- [EU] EU, 강력한 '담배제품지침' 개정안 논의 6
- [EU] EU, 재정위기로 의약품 가격 인하 압력 가중 7
- [일본] 일 의약품 무역적자 2조4천억엔, '01년 이후 최대 7
- [일본] 일본, 고령 치매환자 급증 ... 개호서비스 활성화 배경 8
- [중국] 중 교육부, 상하이 의대생 훈련 프로그램 전국으로 확대 8

산업동향

- [미국] 미 화이자·밀란, 일본내 공동 마케팅 제휴 9
- [독일] 독 베링거인겔하임, 의약품 개발 게임 '시림' 9월 출시 9
- [일본] 일 생물자원연구소, 인니 보고르대와 독감 백신 개발 제휴 10
- [일본] 일 의학종합연구소, 파킨슨병 억제 메커니즘 규명 10
- [영국] 영 GSK, 인도 원료의약품 공장 생산 중단 11
- [글로벌] 미 피어스바이오텍, 의료계에 유용한 10개 스마트폰 앱 선정 11
- [미국] 미 J&J, '15년까지 화장품 유해성분 제거 12
- [EU] EU 화장품 직관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12

포커스

일본, 의료관광 시장 성장 가능성 검토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신성장전략’에 ‘건강대국 전략’이 포함되면서 의료관광이 성장시장으로 주목. 본 자료는 일본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이 '12년 8월 발표한 ‘일본 의료관광의 성장 가능성(わが国における医療観光の成長可能性)’을 통해 일본 의료관광 현황, 정책 추진, 외국인 환자 수용 규모 등을 분석

□ 세계 의료관광 현황

- (현황)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등이 높은 기술, 충실한 서비스,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의료관광을 확대
 - 이러한 국가들은 건강·질병 검진, 심미치과, 미용 등 각국의 강점을 활용한 다언어 의료서비스와 함께 아시아 특유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
- (문제점) 의료관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가 부재해 국가나 활동주체에 따라 의료관광에 대한 범위나 해석이 상이
 - 의료관광은 유럽인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이주해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점에 기원
 - 일본의 경우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국을 방문하고 더불어 해당 국가 관광을 병행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에는 건강검진, 예방의료, 미용성형, 암·심장병 수술 등 광범위한 의료서비스가 포함*
 - * 이 개념은 일본 관광청 인바운드 의료관광 연구회에서 제시

□ 일본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상황

- (정부 부문) 일본은 '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의료관광 관련 조사연구 등을 실시했으나 '10년에 이르러 ‘신성장전략’ 7개 전략 분야에 ‘건강대국 전략’이 포함되면서 의료 국제화가 본격화되자 의료관광이 성장시장으로 주목
 - 일본 정부는 '10년 12월부터 의료 비자를 시행하고 의료 통역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11년 6월에는 관광청 제 1회 ‘의료관광진흥추진회’를 개최해 국내 관계자들의 정보를 공유
 - 지자체들도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 의료관광을 주목하고 관련자의 이해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검토회 설치, 심포지엄 개최,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 프로모션 등을 실시
- (민간 부문) 민간 부문에서도 의료관광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에서는 일본 방문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 전용 부서 및 창구를 설치한 여행사와 의료관광 전문 사업자가 등장
 - 국제 외래진료 가능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 통번역자 양성학교가 잇달아 설립되고 있으며, 여행사·숙박업체·의료기관 등 관련 주체가 협력해 여행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외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추진

□ 의료관광 시장 전망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시장 전망) 영국 국제의료관광저널(IMTJ)은 '08년 해외 의료관광객이 5백~6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미국 국가정책분석센터(NCPA)는 '12년 의료관광 시장이 1천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의료관광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별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점이 존재
 - * 의료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경 이동을 의료관광으로 취급하는 집계가 있는 반면, 해외여행자나 현지 거주자의 긴급한 진찰,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온천치료, 에스테틱, 요가, 워킹 등 건강 증진 활동까지 의료관광을 포함하는 집계도 존재

-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의료관광 시장을 5천5백억엔 규모로 전망한 바 있지만, 현재 일본 방문 의료관광객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신성장전략’ 역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상황
- 이에 따라 의료·관광 관련 주체들 사이에 적극적인 의료관광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
- (개선 방향) 전국적인 의료관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측면 이외에 의료관광객을 주로 수용하게 될 의료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시장 규모를 산출할 필요

□ 일본 의료관광 시장 분석

- (실태) 일본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은 외국인 환자 수용에 대한 일본 의료기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1년 10월 4천58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지난 1년간 입원, 외래, 건강·질병 검진 중 최소 1개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은 약 75%였으나, ‘일본 거주’ 외국인을 진료한 병원 수, ‘관광’이나 ‘치료·검사’ 목적의 외국인을 진료한 병원은 10% 미만
 - * 진료를 실시한 외국인 환자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일본 거주’ 외국인이 98.1%, ‘관광’과 ‘치료·검사’ 목적의 외국인은 각각 1% 미만(아래 <표> 참조)

<표> 진료를 실시한 외국인 환자수 비중

| | 입원 | 외래 | 건강·질병검진 | 합계 |
|-----------------|------|-------|---------|--------|
| 일본 거주 외국인 | 5.7% | 84.9% | 7.5% | 98.1% |
| 관광목적으로 일본방문 | 0.1% | 0.7% | 0.1% | 0.9% |
| 치료·검사 목적으로 일본방문 | 0.1% | 0.5% | 0.4% | 1.0% |
| 합계 | 5.9% | 86.1% | 8.0% | 100.0% |

- 향후 3~5년 내 ‘의료관광’ 유치와 관련해서는 약 30%를 넘는 병원이 의료관광 유치에 관심 또는 적극적 의향을 표시했으며,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경우 병원당 한달 간 18.8명으로 예상
 - * 수용 형태로는 건강·질병 검진이 약 50%, 외래치료가 약 40%로 조사

- (향후 수용 규모)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본 내 일반 병상을 보유한 병원으로 확대했을 경우 일본 의료기관이 수용가능한 외국인 환자는 향후 3~5년간 약 27만명으로 이중 절반은 건강·질병 검진 목적의 환자로 추산
- 일반 병상 보유 병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수('10년 기준)만도 약 135.6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국인 환자 수용 규모는 비중이 극히 작은 것으로 분석

<표> 일본 일반병원의 수용형태별 및 수용가능 환자수

| 구분 | 건강·질병 검진 | 외래 | 입원 | 합계 |
|------------------------|----------|------|-----|-------|
| 외국인 환자 수용 가능한 병원수* | 725 | 848 | 582 | 2,156 |
| 수용 가능한 외국인 환자수 (명/월) | 15.0 | 10.9 | 3.4 | - |
| 수용 가능한 외국인 환자수 (천명/년)* | 130 | 111 | 23 | 264 |

□ 시사점

- (의료공급체제 강화) 일본은 의료수준이 높고 보험제도를 통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반면, 의사·간호사 부족, 의료재정 압박 등 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공급 체제 강화가 시급
- 이번 조사에서 일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일정 부분 확인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은 지역의료 거점 중심의 의료서비스 존속, 안정적인 선진의료 공급을 위한 설비가동률 향상, 다양한 임상 사례 축적 등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수용을 검토해볼 필요
- (의료 환경 정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치료비 미납 등의 문제점 해소, 병원 내 다국어 표시, 문화·관습 차이 대응 등 의료 환경 정비가 요구

정책동향

미국, 건보개혁법 시행시 6만3천명 의사 총원 불가피

-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 AAMA)는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이 시행되면 오는 '15년까지 일반의를 중심으로 6만3천명의 의사 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건보개혁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의사 공급은 여의치 않은 상황
 - * 건보개혁법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3천2백만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질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
 - 더욱이 지난 '96년 이래 의대생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동결되어 현재도 의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도 의사 배출에 걸림돌로 작용
 - 이런 상황에서는 롬니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건보개혁법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사회문화가 유사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영국의 의사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충분 [Guardian, 2012.08.20]

영 보건부, 불법 성형업 규제 강화

- 영국 보건부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 NHS)을 중심으로 오는 '13년 3월까지 성형업계 전반을 점검할 방침
 - 이번 조치는 프랑스 폴리엥플랑프로테스(Poly Implant Prothese : PIP)사의 불법 유방 보형물 이식 수술이 계기가 되었는데, PIP사의 불법 유방보형물 이식 수술을 받은 영국인은 4만명을 상회
 - NHS는 △환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의료진 자격 △공격적 마케팅의 부작용 △의료사고 대응방안 등을 살필 계획으로, 주름 제거·지방흡입·보톡스 시술 등 다방면에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
 - 전문가들이 이번 점검이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Reuters, 2012.08.15]

영 법원, ‘잠김증후군’ 환자 안락사 불허

- 영국 런던법원(High Court in London)은 사고로 인해 뇌간이 손상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마비되어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잠김증후군 (locked-in syndrome)’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불허
 - 법원은 7년 전 사고 이후 전신이 마비된 채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의사를 소통해 온 58세 환자가 고통뿐인 삶을 마감하겠다며 의료진이 처벌 받지 않고 자신에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을 거부
 - 재판을 담당할 3인 합의부는 환자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의식이 온전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불허한다고 판결
 - 또한 법원은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고 환자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조력사를 허용할 지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의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 [Daily Record, 2012.08.17]

EU, 강력한 ‘담배제품지침’ 개정안 논의

- EU는 오는 12월 실시를 목적으로 담뱃갑에 담배회사 자체 상표 부착을 금지하고 흡연의 위해성 경고 그림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강력한 ‘담배제품지침 (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
 - 담뱃갑에서 상표 부착을 금지하는 조치는 호주 연방대법원이 15일 상표 부착을 금지해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동일하게 만들도록 한 호주 정부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 *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담뱃갑 포장 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
 - 호주와 EU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유사한 정책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가 예상
 - 한편 영국 정부는 담배회사의 고유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고 담뱃갑 포장을 표준화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 [Medical Express, 2012.08.16]

EU, 재정위기로 의약품 가격 인하 압력 가중

- 영국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사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 각국이 긴축정책을 채택하면서 제약업계에 의약품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EU 각국 정부는 공공지출의 8~12%를 헬스케어 부문에 투입하고 있는데,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긴축정책을 도입하면서 의약품 구매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 그리스를 비롯한 남지중해 국가들은 국민들이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에 의약품 가격 인하 압력을 가중
 - 영국도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를 통해 의약품 가격인하를 종용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신규 의약품의 가격을 억제하는 법안을 제정
 - 이러한 EU 각국 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은 '10년과 '11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만 70억 유로에 달하는 가격인하를 단행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피력[EUobserver, 2012.08.23]

일 의약품 무역적자 2조4천억엔, '01년 이후 최대

-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11년 약사공업생산동태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일본의 의약품 무역적자는 2조3천929억엔으로 통계가 작성된 '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1천384억엔(2년 연속 감소), 수입은 9.3% 증가한 2조5천313억엔(10년 연속 증가)으로 2조3천929억엔의 무역적자를 기록, '01년 9천728억엔이었던 적자폭이 10년 만에 2.5배로 급증
 - * '11년 수입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은 3천945억엔을 기록한 항암제이며 그 뒤는 1천511억엔의 당뇨병 치료제로 나타났는데, 이들 의약품 개발은 구미 제약업체가 일본 업체를 한참 앞서 있어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
 - '11년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4천809억엔, 수입은 0.3% 증가한 1조584억엔으로 의료기기 부문에서도 무역적자 현상이 지속

[厚生労働省, 2012.08.21]

일본, 고령 치매환자 급증 ... 개호서비스 활성화 배경

- 일본 후생노동성의 '10년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에서 '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인지장애(치매) 환자 수는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한 280만 명(9.5%)으로 추산
 - 이는 일본 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 아니라, 개호 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요개호인정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도 분석
 - * 요개요인정은 요양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함을 의미하는 용어로, 요개요인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0%의 비용을 납부하면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
 - 65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12년 305만명, '15년 345만명, '20년 410만명으로 증가하고, '25년에는 47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노인 인구의 12.8%에 이를 전망
 - 한편 '10년 치매환자의 생활장소는 자택이 140만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요양원이 41만명, 의료기관이 38만명 등으로 집계 [朝日新聞, 2012.08.26]

중 교육부, 상하이 의대생 훈련 프로그램 전국으로 확대

- 중국 교육부는 상하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혁신훈련프로그램(Innovative Training Program)’을 올해 안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 이 프로그램은 5년 교과 과정을 마친 의대생들이 각 지역병원에서 3년 동안 임상의학(clinical medicine)에 관한 실무 훈련을 이행한 뒤 관계당국의 시험과 평가에 모두 합격해야 병원에서 정식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상하이에서는 지난 3년간 1천1백명 이상의 의대생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13년 6월 첫 번째 합격생 386명이 배출될 예정
 - 교육부는 그동안 중국에서는 의학 교육과 의료 활동 사이 간격(gap)이 존재해 왔다고 지적, 교육부는 위생부와 함께 간격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

[Shanghai Daily, 2012.08.20]

산업동향

미 화이자·밀란, 일본내 공동 마케팅 제휴

- 미국의 화이자(Pfizer)와 밀란(Mylan)은 일본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제조·유통·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장기 전략적 제휴에 최종 합의
 - 화이자는 강력한 브랜드 명성을 이용해 주로 제네릭 의약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밀란은 R&D·제조·공급·서비스·경영관리를 담당하기로 합의
 - 해당 의약품은 이미 시판 중인 350여 제품과 개발 단계에 있는 150여 제품을 모두 포함하며, 양사는 이들 제품을 화이자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
 - 양사는 일본에서 독립적인 회사로 활동하나, 제휴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이익은 공유하기로 결정
 - 한편 미 시장조사업체 IMS 헬스케어(IMS Healthcare)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제약시장이자 6위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 * 일본 정부는 전체 의약품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24%에서 올해 말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 [RTTNews, 2012.08.22]

독 베링거인겔하임, 의약품 개발 게임 '시럼' 9월 출시

- 독일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이 글로벌 제약업체 중 처음으로 페이스북 게임인 '시럼(Syrum)'을 9월 출시할 예정
 - 시럼은 플레이어가 가상 실험실을 운영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하며, 복합제를 개발하면서 의약품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기능과 함께 다른 플레이어와도 게임을 같이 하는 등 소셜 게임의 특성도 보유
 - * 베링거는 플레이어들이 시럼을 통해 즐기면서 의약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
 - 베링거는 지난 2년 동안 시럼을 개발했으며, 오는 9월1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창의성 제고 PSFK 컨퍼런스에서 베타버전을 공개할 예정
 - 한편 베링거의 '12년 상반기 매출은 71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 [ZENOPA, 2012.08.23]

일 생물자원연구소, 인니 보고르대와 독감 백신 개발 제휴

- 일본 생물자원연구소(生物資源研究所)는 인도네시아 국립 보고르농업대(Bogor Agriculture University)와 독감바이러스 치료 백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양측은 생물자원연구소의 유전자공학기술을 바탕으로 독감바이러스 치료 백신을 대량 생산함과 동시에 실용화한다는 계획
 - * 연구소가 개발한 유전자공학기술은 누에를 이용해 병원성을 제거한 DNA를 인공 제작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이 백신을 체내에 투여하면 항체가 안전하게 형성
 - 생물자원연구소는 “열대성 전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인도네시아에는 연구체제가 충실하게 갖춰져 있다”고 평가한 뒤 “제휴를 통해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이 가능하다”며 이번 제휴 배경을 설명
 - 양측은 각각 2~3명의 연구원을 교류하고, '13년 3월을 목표로 나고야시 330㎡ 규모의 부지에 연구시설을 구축해 체제를 정비한 뒤 합작 제약회사도 설립한다는 계획 [日本經濟新聞, 2012.08.15]

일 의학종합연구소, 파킨슨병 억제 메커니즘 규명

- 일본 도쿄도 의학종합연구소 연구팀은 신경성 난치병인 파킨슨병의 발병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
 - 연구팀은 파킨슨병 중 20~30대에 많은 ‘약년성 파킨슨병(Juvenile Parkinsonism)’의 경우 두 유전자가 작용하지 않아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나타나고 운동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두 유전자 중 ‘핑크1’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
 - 그 결과 정상인의 핑크1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생기면 인산과 결합해 작용하면서 이상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는 반면, 약년성 파킨슨병 환자의 유전자는 인산과 결합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확인
 - 연구팀은 이상 미토콘드리아의 증가와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산과 결합해 작용하는 핑크1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이 개발되면 파킨슨병 발병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毎日新聞, 2012.08.22]

영 GSK, 인도 원료의약품 공장 생산 중단

- 영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지난 50여년 동안 가동해온 인도 원료의약품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 API)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
 - GSK는 공장에 자본을 투자하기 보다는 폐쇄할 예정이며, 330여 종업원들은 회사의 자발적 퇴직 계획을 수용했다고 설명
 -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주 테인(Thane)에 위치한 API 공장은 지난 '61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주로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을 생산
 - * 베타메타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가운데 소염 작용이 가장 큰 연고제 및 정제 형태의 스테로이드
 - GSK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인도 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지적, API 공장을 가동하기보다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아웃소싱 하는 편이 비용 효과적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

[In-Pharma Technologist, 2012.08.20]

미 피어스바이오텍, 의료계에 유용한 10개 스마트폰 앱 선정

- 미국의 의료정보 제공업체 피어스바이오텍아이티(FierceBiotechIT)는 제약업체와 의사 및 환자에게 유용한 10개 스마트폰 앱을 다음과 같이 선정

<유용한 10개 스마트폰 웹>

| 개발업체 | 제품 | 대표적 기능 |
|-------|---|--|
| 얀센 | ○ 케어포투데이(Care4Today) | 환자에게 복약, 내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 | ○ 건선(Psoriasis) | 의사의 환자 질환 중증도 점검을 지원 |
| 사노피 | ○ 고밀스(GoMeals) | 4만종의 음식과 2만개 메뉴에 대한 영양 정보를 제공 |
| 화이자 | ○ 박스텍스트(Vaxtext) | 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15개 질환의 백신접종 스케줄을 부모에 제공 |
| GSK | ○ 마이아스마(MyAsthma) | 천식 유발 요인, 관리, 진행 상황 결과를 의료진에 전달 |
| 머크 | ○ 아이케모다이어리(iChemoDiary) | 암환자의 증상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 제공 |
| 노바티스 | ○ 아카데미투고(Academy2GO) | 안과전문의를 위한 학습 앱 |
| 일라이릴리 | ○ 뇌종양임상시험리소스(Oncology Clinical Trials Resource) | 일라이릴리가 후원하는 암 임상시험 정보 검색 |
| AZ | ○ AZ퀘스트(AZ Quest) | 심장전문의에 특화된 앱 |
| 애보트 | ○ 비시스 피시(Vysis FISH) | 염색체와 특정 유전자 위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 |

[Fierce Biotech IT, 2012.08.22]

미 J&J, '15년까지 화장품 유해성분 제거

- 미 존슨앤존슨(J&J)은 오는 '15년까지 화장품과 세면도구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
 - 지난해 J&J는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자사 유아제품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13년까지 제거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아비노(Aveeno), 뉴트로지나(Neutrogena), 루브리덤(Lubriderm), RoC 등 스킨케어 브랜드로까지 대상을 확대
 - J&J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디옥산(formaldehyde) 등 2개 발암 물질과 트리클로산(triclosan), 프탈산(phthalates), 파라벤(parabens)과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향신료를 향후 3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제거할 방침
 - 한편 J&J는 소비자들에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성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safetyandcarecommitment.com)도 개설 [AP, 2012.08.15]

EU 화장품 직판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 시장조사업체인 독일 와이스타스닷컴(yStars.com)은 최근 발표한 '12년 유럽 직접판매 보고서(Europe Direct Selling Report, 2012)'에서 EU 화장품 직판 시장이 역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11년 EU 화장품 직판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발트해 국가의 성장세도 뚜렷
 - 업체들 가운데는 포르베르크(Vorwerk), 이브로셰(Yves Rocher), 에이본프로덕츠(Avon Products), 메리케이(Mary Kay), 오리플람(Oriflame), 나투라코스메티코스(Natura Cosmetics), 뉴스킨(Nu Skin), 일본 메나도(Menard) 및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등의 실적이 우수
 - * 이 중 역대 15개국에 진출한 메리케이는 '11년 독일에서만 2만4천명 이상의 판매 인력이 활동하는 등 각 업체는 특정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이브로셰의 경우 특히 스위스 시장에서 견고한 실적을 기록
 - 와이스타스닷컴은 향후에도 EU 화장품 직판시장이 최소한 소폭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CosmeticsDesign-Europe, 2012.08.16]